내 갈길을 찾을 수 있는 한 해 되길

경희 구성원의 새해 소망을 들어본다

1995년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다사다난이란 일상어가 무심하게 들릴 수 없는 한해로 기록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12·23 개각은 문민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무너뜨려버렸다. 우리 학교는 공영일 총장의 취임과 함께 의욕적인 개혁을 시작했지만, 개혁자체에 대한 보수적 교수들의 반발, 개혁의 방법에 대한 학내 여러단체들의 비판에 부딪쳐야 했다. 지난 자정에도 보신각 종은 33번을 울었다. 모든 사람들이 33번의 종소리에 1994년을 흘려보내고 1995년의 소망을 빌었을 것이다. 경희 가족들은 올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까. 모두 14명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았다.

젊은이의 시각으로

◇박명숙 교수(무용)=일에 너무 치인 느낌이다. 좋은 작품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평생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작품을 새해에는 꼭 하고 싶다. 새로 태어나고 싶다.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밝고 신선하게, 젊은이의 시각으로 사물을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신세대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찾고 싶다. 그리고,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김동현 교수(약학)=개인적인 소망보다는 학생들에게 이말을 꼭 해주고 싶다. 첫째, 불의를 보면 참지않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은 청년의 특권이다. 바른 것, 정의로운 것, 진리를 추구하기 바란다. 둘째, 현실에 너무 찌들지 말고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꿈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 세째, 로맨스를 즐기라고 말해주고 싶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는 대학생이면 더 좋겠다. 캠퍼스가 낭만으로 활기 차기를 바란다.

질 높은 강의 노력

◇이건수 교수(외대 영문)=올해는 가정에 충실하겠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희목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연구와 강의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질높은 강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학생들은 지금까지보다 더 학업에 충실히 하여 자기 실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황주호 교수(원자력 공학)=지난 3년반 동안 실험한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타나 연구성과로써 꽃 다듬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를 국민들에게 가슴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소설을 쓰고 싶다. 올해는 경희재건의 정신으로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측의 총력이 필요한 한해라고 생각한다. 잠재력이 많은 학교인 만큼 학교측의 충분한 활동과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학생회도 학교 발전 위한 건설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연장을 만드는 곳이다. 여기서 연장을 잘 만들어야 사회에서 살아남는다. 학생들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함에 대한 적응력을 길렀으면 더 바랄나위 없겠다.

딸이 예쁘게 자랐으면

◇김미애 교수(기악)=새해에는 우리 딸이 국민학교 6학년이 된다. 건강하게 잘자라서 고맙다. 한가지 소망이라면 딸이 교실에서 앞줄에 앉는데 키가 10㎝ 이상 컸으면 좋겠다. 딸이 예쁘고 착하게 자란다면 엄마로서 더 바람은 없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새해에 책을 한권 출판하게 되는데(혜경의 음악미학론),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으면 한다.

◇장은석씨(문리대 수위)=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딸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게 가장 중요하다. 가정에 더 충실해서 집에 웃음이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소망이지만 새해에는 꼭 우리집을 장만하고 싶다.

◇손용기씨(서울 캠퍼스 학생처 동아리 담당)=무엇보다 학교가 발전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학교측은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투쟁도 좋지만 그전에 먼저 학생들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학교의 현실적 여건과 전체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겸허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희대는 학생들의 모교인데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규칙을 지켰으면 한다. 예를 들어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부쳐야 한다. 새해에는 더 이상 게시물이 아무데나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안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진옥씨(행정학 박사과정·연구조교)=학교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왔다. 요식행위를 줄이고 행정절차가 더 간단해져야 한다. 행정조교의 처우가 개선되고 직원들의 역할이 중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논문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당이 빨리 완공돼서 거기서 학위를 받으면 멋진 졸업식이 될 것 같다.

작지만 인간미 넘치는 진솔한 새해 소망들
사고없고 비리없는 건강한 사회 기원

강당 완공된다면

◇김학경씨(수원캠퍼스 기획실 홍보담당)=식품가공학과 87학번으로 지난해 6월에 공채로 들어왔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때 우리학교는 학교와 학생들이 서로 격려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학교는 책임있게 행정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믿고 따르고, 교수는 학생 지도 및 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전구성원이 학교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이 거의 완공되었는데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다. 후배들이 좋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정태옥씨(수원캠퍼스 학생회관 수위)=소망이라기 보다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싶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월급 인상이 물가인상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학교에서 이점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학교가 학생들에게 관심이 너무 적은 것 같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소한 일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골불견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올해는 학생들에게 모든 언행에 있어서 지성인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지성인의 모습 부탁

◇김효정양(의학4)=근대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로 얼룩진 한해였다. 새해에는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텁 생활이 기대된다. 척어도 종합병원의 구본승씨가 맡은 엉터리 의사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이다. 별다른 바람은 없다. '작은 소망'하나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새해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김덕수군(기계1)=새해에는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가장 좋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과 컴퓨터를 배워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표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고 도서관을 빨리 완공해 줬으면 좋겠다. 스쿨버스도 배차시간을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

◇성은희양(식품가공1)=전공을 택할 것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내 갈길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바램이다. 새해에는 살도 빼고 화장도 배워서 예뻐져야겠다. 친구들이 우리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새아양(중문1)=공부 열심히 하고, 잘 놀고, 과 생활 잘하고, 좋은 선배되는 것이 올해의 소망이다. 여드름을 없애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바램이다. 덧붙여 말한다면 학교에서 더이상 CC(캠퍼스 커플)가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배 아프다.

〈김중석·배종근 기자〉

강단시론

안 영 수
〈문리대 교수 영문학〉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였다.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서 등떠밀려 내동댕이 쳐지고 밀려난 기분이 든다. WTO와 UR 비준 등 나라안팎으로 경쟁적인 세계화와 국제화 조류에 밀려 모두가 현재의 자신의 자리매김이 어디인지 조차 가늠하기 힘들만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원 대형 사건과 사고가 그리 자주 일어나는지 신문과 텔리비젼 보기가 겁난다고들 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모일간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형 사건의 후유증으로 국민들 사이에 '만성불안증후군'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조사 대상자들중 85% 이상이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육교를 피해 먼거리로 돌아가거나 가스 밸브가 잠겼는지 두세번 확인하여야 직성이 풀리고 한강다리를 건너는 자가용 운전자의 일반수칙이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풀고 창문을 조금 열어 놓는다는 것이다.

'만성불안증후군' 현상 확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범죄, 교량, 도시가스,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우리들의 높은 불안체감온도를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내릴 수가 없어 안타깝다. 그럼 누가 불안의 원인제공자인가? 내탓인가? 네탓인가? 나에게는 물론 당신에게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있는가?

커모드(Frank Kermode)가 쓴 소설론인 "끝맺기에 대한 인식"에서 사람들은 소설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듯이 인생과 역사도 나누어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끝 또는 결말을 두려워한다. 결말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세기에서 다른 세기로 넘어가는 파도기에 이르면 여러가지 해석을 하면서 종말이 왔음을 예언하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의 단골 메뉴는 공포와 타락인데 후자의 경우 혁신의 희망을 위기 의식을 불식하기 위하여 아스(Adso)라는 승려를 내세워 세상의 종말은 에측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볼트만(Bultmann)은 종말은 목전에 임박한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종말의 의미를 가진 것이 시간이라는 자두리만이 아니라 역사와 개인의 삶전체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종말은 곧 동일한 것이며 순간마다 종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야스퍼스(Jaspers)도 '산다는 것은 곧 위기의 연속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삶은 곧 위기의 연속

야스퍼스의 진술처럼 삶이 곧 위기의 연속이라면 왜 이토록 우리는 '불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 이 병의 원인은 우리들의 성찰과 반성 부재라고 생각한다. 종교철학자 틸리(Paul Tillich)의 표현을 빌리면 산업사회의 현대인은 수직차원의 사고를 상실하고 수평차원의 사고, 즉 '보다 많이' '보다 크게' '보다 낫게'라는 슬르건 아래 공간적이고 양적인 생장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경시하거나 도외시하고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물질추구에 집착하고 이를 과시하려는 데서 비리와 부실이 창궐한다.

지금 각 대학마다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평가열풍을 예로 들어보자. 언론 매체가 앞장서서 대학의 등급을 발표하고 이에 편승한 대학들은 보다 나은 점수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교육의 개방에 맞서 대학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거쳐야할 과정이리라. 그러나 급하게 먹은 음식은 체할 염려가 있듯이 역작용이 염려된다. 대학의 교과과정은 이론과 실기, 문과와 이과 등의 균형이 유지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과 개편과정에서 취적이 잘 된다는 강좌 개설에 역점을 두고 문학, 철학, 사학 같은 소위 추상적인 비인기 강좌는 자연 도태가 되도록 방치한 듯한 인상을 준다. 물질추구에 앞섰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수지차원의 사고를 풍요하게 하는 정신세계의 함양도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되다가 부작용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는 교수 평가제의 도입도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기간이 선행된 다음에 시행이 되었어야 할 것 같다. 교수들의 강의, 업적, 봉사평가등을 계량화하는 것은 번화를 싫어하고 무사안일에 빠진 교수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겠지만 교수가 소신이나 사명감을 상실하고 단순한 학문장사꾼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게 한다. 사제간의 상호신뢰와 애정은 어떤 잣대로 잴 수 있는가?

희망의 날개를 달고

도전 또한 인간의 몫

그러나 새해가 밝았다. 21세기를 맞기에 앞선 파도기적 현상으로 도처에서 위기의식이 편드기처럼 우리 마음 속에 붙어있다 해도 1995년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 것이다. 불안도 인간의 몫이지만 도전 또한 인간의 몫이다. 게다가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인 희망이 있지 않은가.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은 '희망은 날개를 달고/영혼의 횃대에 앉아/가사없는 곡조를 노래하며/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고 절망 속에서 더욱 값진 희망을 노래하였다. 그것은 마치 동면한 듯이 정적에 싸인 캠퍼스 곳곳에 새학기에 맞게될 새내기들의 열정이 솟아났고 메마른 나무에는 여전히 생명의 수액이 흘러 새순을 잉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만히 귀기울여 듣노라면 희망은 날개를 달고 우리 각자의 영혼의 횃대에 앉아 속삭이고 있다.

PALCOM 경희전자

노트북컴퓨터

가격파괴

NOTE BOOK :
INEX 4150 ₩950,000
CPU SLC2-50 MEMORY 4MB
HDD 120 MB
外 NOTEBOOK 전기종 취급

PRINTER :
삼보STLUS-300H ₩250,000
360DPI INKJET,A4
QUNIX 피카소I ₩550,000
600DPI LASER,A4

MICRONICS M/B, 전문가용PC조립도 취급합니다.

경 희 전 자

용산컴퓨터 도매상가 6 동 2 층 117 호
TEL. (代) 703-1427

학위수여식 개선

1. 1995년 2월부터 현행 합동 학위수여식을 석·박사 학위수여식은 합동으로, 학사학위수여는 각 단과대학별로 실시함.

2. 개선내용

구분 / 내용	대 학 원	단과대학
학위수여식 주관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학위수여식 일자 및 시간	*매년 2월 23일 11 : 00 *각 대학원 합동으로 학위수여식 진행. *후기 학위수여식 없음 (학위기만 수여)	*매년 2월 23일 11 : 00 또는 14 : 00 *각 단과대학별로 학위수여식 진행. *후기학위수여식 없음 (증서만 수여)

교 무 처 장

재학생 등록절차 개선

1. 학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학생 등록절차를 개선함.

2. 등록절차 개선내용

구 분	개 선 내 용
등록시기 및 절 차	1. 개강 1주일 전까지 등록기간을 15일간 설정하여 1회로 종료. 2. 설정된 등록기간내에 등록연기사유서를 제출(학장, 학과 경유)하여야함(사유서 제출자 등록기간은 복학생 등록기간 이내에 등록할 수 있음). 3. 등록기간에 등록금 또는 등록연기사유서 미제출자는 미등록자로 처리됨.
미등록시 제재조치	1. 제증명 발급중지, 도서대출 중지, 학생증 재발급 중지 (현행) 2. 수강신청시 선택과목의 우선순위가 제외됨.

교 무 처 장